2015학년도 경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수시모집

AAT 인문사회계열 문제지

시 험 시 간	9:30 ~ 11:10 (100분)	
지원학과(부)	학과(부, 전공)	감독위원 확인
수 험 번 호		㊞
성 명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1. **문제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2. **답안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성명,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정확하게 기입할 것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3. 문제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문제지와 답안지**를 확인할 것
4.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5. 답안지에 물음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괄호( )나 표 안의 칸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6.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7. 문제지의 빈 공간을 연습지로 사용할 수 있음

[1]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언론은 누구에게 봉사하는가? 개개인의 독자에게? 전체 공중에게? 그 위에 있는 정부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그 자신에게 봉사하는가? 이 질문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거의 모든 철학적 논쟁에서 중심을 이룬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논쟁에 참여한 사상가들이 인간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이성적 존재로 믿느냐 안 믿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루소와 같이 기성제도를 불신하고 공중(公衆)과 일반의지의 궁극적 지혜를 믿고 확신하는 사상가들은 언론의 임무가 바로 공중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본다. 반면에 홉스와 같이 인간성 또는 전체 공중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하는 사상가들은 언론을 현인이나 도덕가가 일반 사람들이 현명하고 고상하게 행동하도록 영향을 주는 데 이용가능한 도구로 생각한다.

(나) 버크는 혁명을 오래된 제도의 파괴로 본다. 혁명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다. 제도가 그 목적과 활력을 잃으면 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전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구제도가 낳은 지도자와 전통은 나름대로 미덕이 있다. 미용사나 양초장이에게 권력을 넘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노동계급 모두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은 방종과 통제할 수 없는 열정에게 문을 열어 주는 것이다."라고 버크는 말한다.

페인은 버크의 견해를 강하게 비판한다. 그는 "정부는 산 자를 위한 것이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버크는 인간을 경멸하고 인민을 멸시하고 있다. 인민을 사기와 우상과 가식으로 지배해야 하는 한 떼의 무리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인간은 개인적 권리의 문제에서 후손에 대해 어떤 특권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세습적인 정부를 설립할 권한이 없으며, 가질 수도 없다. 미용사와 양초장이 그리고 땅을 가진 귀족에게 모두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대표성 있는 정부만이 자연과 이성과 경험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페인은 주장한다.

(다) "모든 주의(主義)와 주장을 이 땅 위에 자유로이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면 진리도 거기에 있을 터인데, 허가를 받게 하고 금령(禁令)으로 금지함으로써 우리는 진리의 힘을 의심하는 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 진리와 거짓이 서로 다투게 하라. 어느 누가 자유롭고 개방된 대결에서 진리가 패배하리라고 본단 말인가?"

1. (다)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상가와 반대하는 사상가를 (가)와 (나)에서 있는 대로 찾아 쓰고, 지지와 반대 각각의 입장에서서 오늘날의 인터넷 매체가 언론의 자유와 여론 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무엇인지 제시문의 문맥에서 추론하여 서술하시오. (각 100자 이내) (16점)

[2]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대학생 갑은 투표 행태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기존 연구를 살펴 본 결과, 유권자는 이념성향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갑은 최근의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갑이 선택한 분석대상은 보수정당 또는 진보정당 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이다. 독립변인인 이념성향은 진보, 중도, 보수에 대한 유권자 자신의 주관적 이념성향이고, 종속변인인 후보자 선택은 진보정당 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의 여부이다.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갑은 유권자의 이념성향이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했다.

<표 1> 유권자의 이념성향에 따른 진보정당 후보자선택

유권자 이념성향	진보정당 후보자선택	유권자 수
진보	78명(81%)	96명(100%)
중도	141명(51%)	278명(100%)
보수	18명(16%)	116명(100%)

그러나 을은 갑의 추정에 회의적이었다. 왜냐하면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이념성향뿐만 아니라 출생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출생지역에 따라 그 지역을 대표하고 옹호할 수 있는 정당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출생지역은 이념성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을은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후보자 선택 간의 관계를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출생지역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출생지역이 같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이념성향이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갑은 을의 주장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다. 추가 분석에 사용된 통제변인은 응답자의 출생지역이고, 이는 출생지역 A, 출생지역 B 그리고 출생지역 C로 구분되었다. 유권자의 출생지역이 통제된 상태에서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는 <표 1>과 동일한 여론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 2> 유권자의 이념성향에 따른 진보정당 후보자선택: 출생지역 통제

유권자 이념성향	출생지역 A		출생지역 B		출생지역 C	
	진보정당 후보자선택	유권자 수	진보정당 후보자선택	유권자 수	진보정당 후보자선택	유권자 수
진보	12명 (80%)	15명 (100%)	44명 (81%)	54명 (100%)	22명 (81%)	27명 (100%)
중도	16명 (80%)	20명 (100%)	72명 (48%)	149명 (100%)	53명 (49%)	109명 (100%)
보수	4명 (80%)	5명 (100%)	6명 (13%)	48명 (100%)	8명 (13%)	63명 (100%)

(나) 통제된 비교에서는 두 변인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와 다른 다양한 유형의 관계들이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는 두 변인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보였던 관계가 제3의 변인을 통제한 후에 사라지는 경우이다. 이는 허위관계라고 한다. 가령 미국에서 민주당을 선호하는 사람은 공화당을 선호하는 사람보다 총기소유 금지를 찬성할 것이라는 가설이 제시되었고, 이러한 가설에 대한 두 변인만의 분석은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고 하자. 그러나 이와 같은 검증이 정당선호도와 총기소유 금지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인, 예를 들어 성별이 통제된 후에는 사라졌다고 할 경우, 이는 허위관계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제3의 변인이 통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변인이 여전히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이다. 이는 독립적 관계라고 한다. 가령 제3의 변인으로 제기된 성별이 통제된 이후에도 여전히 민주당을 선호하는 사람이 공화당을 선호하는 사람보다 총기소유 금지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 이는 독립적 관계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제3의 변인 값에 따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가 변화하는 경우이다. 이는 조건적 관계라고 한다. 가령 남성 집단에서는 민주당 선호자와 공화당 선호자 간에 총기소유 금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없지만, 여성 집단에서는 민주당 선호자가 공화당 선호자보다 총기소유 금지에 대한 의견이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경우이다. 제3의 변인 값에 따라 관계의 양상이 달라지는 경우,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조건적 관계라고 한다.

2. (가)의 <표 1> 결과가 <표 2> 결과로 바뀌게 된 점을 설명할 수 있는 관계를 (나)에서 골라 쓰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표를 분석하여 서술하시오. (240자 이내) (16점)

[3]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날 우리는 브랜드 상품, 컴퓨터 게임의 가상세계, 광고의 화려한 이미지, 매스 미디어에 등장하는 스타 등 기호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용하고 소유하는 목적을 넘어 디자인, 상표, 이미지와 같은 기호를 소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핸드폰을 살 때 기능보다 디자인의 변화에 더 민감하다. 매번 외양을 바꾸는 자동차는 폐기되기 위해 생산되고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의 소비란 기호를 생산하고 흡수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소비사회에서 모든 것은 기호의 조작과 계산 속에서 움직인다. 기호에 둘러싸인 인간은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며, 노동을 통해 만들어 낸 자신의 결과물을 직접 볼 수도 없고, 자기 자신과 마주 대하는 일도 없다. 행복한 때에도 불행한 때에도 인간이 자신의 상(像)을 마주 대하는 장소였던 거울이 현대의 질서에서는 사라지고 그 대신에 쇼윈도가 출현했다. ㉠쇼윈도 앞에 선 인간은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기호화된 대량의 사물을 응시할 따름이며, 응시하는 것에 의해서 그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의미하는 기호의 질서 속으로 흡수되어 버린다.

(나) 호기심은 그 특성상 보려는 욕망을 가진 인간의 독특한 존재방식을 일컫는 용어로서 사물을 감지하며 만나는 인식을 표현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리를 파악하는 순수 직관도 근본적으로는 호기심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호기심은 가까이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멀리 있는 낯선 세계로의 지향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상적 관심사에 매몰된 호기심은 사물의 겉모양만을 보려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일상적 호기심은 사물의 진정한 모습에 이르기 위하여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기 위하여 보려고 애쓴다. 호기심이 새로운 것을 찾는 이유는 그것에서 다시금 새로운 것으로 뛰어들기 위해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은 가까이 있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산만하게 떠다니는 특성을 띠고 있다. 일상적 호기심에 빠져있는 인간은 본래적인 자기와 사물의 본질을 놓쳐버린다. 성찰하며 머무를 겨를도 없이 인간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데서 발생하는 동요와 흥분에 사로잡혀 있다.

(다) 사건, 정보, 이미지의 쇄도는 인간을 사색하며 머무르게 놓아두지 않는다. 질주하듯 망막을 스치고 지나가는 이미지들은 우리의 주의를 잡아두지 못하며 사물 곁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미지들은 그저 빠르게 시각적 자극을 흘뿌리고는 금세 퇴색해버리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깊은 영향을 남기지 못한다. 사물 곁에 오래 머무는 사색만이 사물의 진정한 향기를 맡을 수 있다. 오늘날 상품들은 매우 빨리 낡아버린다. 새로운 버전, 새로운 모델의 등장을 위해 제품의 수명이 아주 짧아진 것이다. 게다가 새로운 것에 대한 강박이 혁신의 주기를 단축시킨다. 이러한 강박은 아무것도 지속성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보와 이미지의 범람은 사색 속의 머무름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완결된 작품은 없고 끝도 없이 빠르게 이어지는 온갖 버전과 변형만이 난무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삶을 진정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부산함이 아니라 ㉡지속성의 경험이다.

3-1. (가)의 ㉠이 어떤 인간인지 (나)의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120자 이내) (10점)

3-2. (다)의 ㉡을 얻기 위해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한지 (다)의 문맥에서 찾아 서술하시오. (60자 이내) (6점)

[4]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신(神)이 카인에게 동생 아벨은 어디 있냐고 물었다. 카인은 화를 내며 의문형으로 답했다. "내 동생이 내 책임입니까? 내가 알 게 뭡니까?" 이러한 카인의 의문형 답은 부도덕의 기원을 말해준다. 내 형제는 당연히 내 책임이다. 내가 형제를 책임져야 하는 이유는 형제의 안녕과 복지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형제가 내게 의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받아들일 때, 나는 도덕적일 수 있다. 내가 그 의존성에 의문을 던지는 순간, 왜 형제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유를 대라고 요구하는 순간, 나는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 되며 더 이상 도덕적일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카인의 의문형 답이 세계 도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 사람들은 왜 자신이 이웃의 안녕에 신경 써야 하는지 반문하고, 왜 국가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는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선, 경제 영역에서 국가 역할의 약화를 들 수 있다. 자본주의가 작동하려면 자본은 노동을 살 수 있어야 하고, 노동은 구매자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상품으로서 매력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과거의 유휴(遊休) 노동력은 장차 고용될 가능성이 있는 노동예비군이었고, 국가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는 노동예비군의 건강과 복지를 돌볼 필요가 있었다. 국민의 대규모 노동력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필요시 산업역군으로 투입토록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었고, 국가가 복지정책을 펴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국민에게 일일이 설득할 필요도 없었다. 또한 과거에 경제의 주요 단위는 국가였다. 노동과 자본의 만남은 한 국가의 고정된 장소에서 이뤄졌다. 어느 한쪽도 쉽게 다른 나라로 옮겨갈 수 없었고, 자본과 노동은 '국적'을 갖고 있었다.

오늘날 산업구조는 더 이상 대량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생산 공정에서 노동력 삭감의 계기가 된다. 첨단투자가 늘어날수록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다. 기업 경쟁력과 생산성은 인건비 삭감으로 측정되고, 해고를 뜻하는 구조조정은 효율적인 경영기법으로 간주된다. 실직자들은 더 이상 노동예비군이 아니다. 한 번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되면 재취업의 기회를 얻기가 매우 힘들다. 또한 자본과 노동시장의 세계화로 인해 국가는 더 이상 중요한 경제 단위가 아니다. 오늘날 자본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탈(脫) 국가적이다. 자본은 국가 단위를 벗어나 작동하며, 각국 정부는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축소, 규제완화와 함께 유연한 노동시장 보장을 제시한다. 노동은 범(汎) 지구적 대체재이다. 국내의 빈 일자리는 외국인 노동력으로 재빨리 채워진다.

이러한 경제상황의 변화에 동반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직장생활의 불확실성이다. 예전에 포드사(社)에서 첫 직장을 얻은 젊은이는 별일 없는 한 거기에서 한 평생 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정은 급변했다. 누구라도 예고 없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열심히 일한다고 평생직장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직장생활의 시간 단위는 점점 짧아진다. 이러한 직업적 불확실성은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사회현상이다. 갑작스러운 해고는 생계를 파탄 내고, 가족 해체를 불러올 수 있는 일종의 재앙이다. 이런 가공할 재앙에 대한 두려움과 전망은 강한 개인화를 촉진한다. 누가 해고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동의 이익'은 점차 모호해지고 낯선 말이 된다. 두려움, 불안, 걱정은 홀로 삭여야 한다.

이렇듯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단편적이 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해지면, 서로에 대한 의존성을 기반으로 하는 배려와 책임의 정신이 싹트고 뿌리 내리기 힘들다. 하지만 저러한 상황의 변화 속에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함께 사는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직장은 납득할 수 있는 공존의 법칙을 마련하려고 애쓰는 공동의 주거지가 아니라 며칠 밤 머무르고 나면 급히 떠나는 야영지로 간주된다. 우리 시대는 약한 결속력의 시대이다.

.....

4-1. ㉠에 해당하는 것을 제시문에서 세 가지 이상 찾아 서술하시오. (200자 이내) (12점)

4-2. 한 사람이 하던 일을 여럿이 함께 나누어 일하도록 하는 '일자리 나누기'를 ㉡으로 제안하려는 논의가 있다. 제시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일자리 나누기'가 가질 수 있는 긍정적 의미를 서술하시오. (80자 이내) (4점)

[5]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돼지는 그 이름을 옳게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돼지는 사실 더러운 동물이기 때문이다."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이 우리를 멈칫하게 하는 것은 왜인가? 그것은 이 말에 '돼지'라는 음(音)이 더러움이라는 본질을 담고 있다는 가정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 사실상 그 음은 자의적이며, 거기에 불결함이라는 본질을 표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단어가 정확하게 돼지의 본질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 어느 대상이 '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만 그 단어를 '두더지'나 '다람쥐'와 혼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우리가 조상 대대로 '개'를 '돼지'라고 불렀더라면 '닭 쫓던 돼지 지붕 쳐다본다.'라는 속담이 생겨났을 것이다. [㉡] 이와 같이 한 단어의 발화된 음성(기표)과 그 의미(기의)는 자의적 결합이다.

이 사실은 놀랍게도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밝혀졌다. 데리다라는 학자는 이 발견이 그렇게 늦어졌다는 점에 의문을 품고 소리글자, 즉 표음문자의 특성을 탐구했다. 표음문자는 상형문자와 달리 문자가 곧 말소리이기 때문에 읽는 순간 시각적 형상 기호가 개입되지 않고 의미가 바로 파악된다. [㉢] 그러면서 표음문자는 점점 소리에 민감해지고, 모음 또는 자음과 같은 말소리의 교체에 의해 의미를 구분하는 쪽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그 결과 단어의 의미가 직접적으로 존재한다는 청각적 착각이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음향 착각'이 오랫동안 기표와 기의의 결합이 자의적이며 기의는 그 기표와 다른 것들 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할 뿐임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 다시 말해 기표는 기표일 뿐, 그 자체에 의미가 직접적으로 혹은 필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미는 맥락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 그런데도 사람들은 '개[狗]'라는 뜻이 '개[gæ]'라는 음에 본래부터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는 기의의 환상에 사로잡혀 기표의 독립성을 망각한 것이다.

한편 언어는 일정한 체계를 형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표와 기의 간의 자의성을 잃고, 기의는 기표와의 결속을 강화한다. 그 결과 직접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기의를 중심으로 논리적인 관념 체계를 구축한다. 예컨대 '풀[草]'이라는 의미(기의)는 반드시 '풀[pul]'이라는 이름(기표)으로 불려야 한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언어 체계에 의해서만이 비로소 실체에 대한 접근과 기술이 가능해진다. [㉤] 이렇게 언어를 통해 세계를 인식한다는 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언어 체계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어느 순간, 그 언어의 관념 체계에 익숙해지게 되면 어떤 기의가 기존에 정해진 그 기표 외에 다른 기표로 불린다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규정되고 개념화된 논리 체계에 맞춰서, 사실상 다르게 볼 수도 있는 세계를 관습적 언어로 규정하려고 하게 된다. 이것은 일종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언어가 세계를 규정하는 원리를 역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실재를 특정한 것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 이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생기게 된다는 점에서 위와 반대이다. 이러한 언어의 작용들은 우리의 언어생활에 미묘하게 작용하여 잘 간파되지 않는다.

5-1. 제시문의 ㉠~㉥ 중에 다음 A~D의 예들이 들어가기에 문맥상 가장 적절한 곳을 찾아 각각 한 가지씩 쓰시오. (8점)

예	A	B	C	D
들어갈 곳(㉠~㉥)				

A : 예컨대 유력 신문이 "테러리스트들이 오늘 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라고 썼다고 하자. '테러리스트' 대신에 '반부패 저항군'이나 '자유수호군'으로 바꾸면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신문의 언어는 어떤 실체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것이다.

B : 다시 말해서 '개[gæ]'라는 단어는 개와 같은 특징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리가 넷인 개과의 동물을 지시해야 할 아무런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단지 그 기표가 걔, 게, 계, 기가 아니기 때문에 '개[狗]'를 가리키는 것이다.

C : 예컨대 같은 설경(雪景)을 보는데도 이누이트들은 유럽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종류의 다양한 눈을 본다. 그 이유는 이누이트의 언어에는 눈을 묘사하는 단어가 50가지가 넘지만 유럽인들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언어가 없기 때문이다.

D : 예컨대 '잘 했다'라는 발화는 칭찬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행동을 비난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이렇듯 하나의 언어 표현이 언제나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5-2. 다음 시의 밑줄 친 부분은 시적화자 '나'의 심경 변화가 드러나 있다. '나'는 '꽃'과 '잡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곧 어떤 점을 깨닫게 되었는지 제시문의 내용을 근거로 서술하시오. (250자 이내) (12점)

민지의 꽃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청옥산 기슭
덜렁 집 한 채 짓고 살러 들어간 제자를 찾아갔다
거기서 만들고 거기서 키웠다는
다섯 살 배기 딸 민지
민지가 아침 일찍 눈 비비고 일어나
저보다 큰 물뿌리개를 나한테 들리고
질경이 나싱개 토끼풀 억새……
이런 풀들에게 물을 주며
잘 잤니,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게 뭔데 거기다 물을 주니?
꽃이야, 하고 민지가 대답했다
그건 잡초야, 라고 말하려던 내 입이 다물어졌다
내 말은 때가 묻어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꽃이야, 하는 그 애의 말 한 마디가
풀잎의 풋풋한 잠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다

[6]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학은 외부 세계를 알아가는 주요 과정이다. 그 방식은 지각된 감각 자료를 분류하고 공통점을 찾아내고, 거기서 일반적 개념과 규칙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과정은 개별 사물의 다양하고 고유한 성질을 꾸준히 단순화하는 것이다. 과학의 궁극적 목표는 세계의 질서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은 주어진 대상의 몇몇 중심적 특성들에 주목한다.

예술은 이러한 단순화와 일반화를 용인하지 않는다. 사물의 보편적 성질이나 원인을 추궁하지도 않는다. 그 대신 예술은 직관을 통해 사물의 다양한 형상을 드러낸다. 그 형상은 사물이 갖고 있는 참되고 순수한 모습이다. 그런데 그 형상은 단순히 자연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사물의 외양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예술가의 눈으로 발견한 사물의 숨은 아름다움이다. 예술가는 그 숨은 아름다움을 찾아내서 제시하는 사람이다. 예술가는 과학자가 사실 혹은 자연 법칙의 발견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 형상의 발견자이다.

과학은 자연현상들을 더듬어, 거기서 제1원인과 일반 법칙을 찾아내 질서를 추구한다. 하지만 예술은 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직관을 통해 세계의 풍부함과 다양함에 관심을 갖는다. 예술의 궁극적 지향인 미(美)는 보편적 과학 법칙과는 달리 사물에 대한 '공감적 시선'에서 나온다. 예술은 단지 주어진 현실의 기계적 재현이 아니다. 자연과 인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공감을 추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그 방법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을 동반한 재현이다. '볼 줄 안다'가 예술가의 최고의 자질이라고 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은 이 점에서 옳다. 위대한 화가는 사물과 자연의 형상을 보고, 위대한 극작가는 삶의 깊이와 넓이를 보며, 위대한 시인은 모호한 열정과 정념에 형상을 부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술가의 '보는 능력'은 객관적인 사물 그 자체의 성질과 예술가의 주관적 미의식이 지속적으로 종합되는 구성적 과정을 통해 실현된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과학도 한갓 사실 수집인 것만은 아니다. 위대한 과학자들은 과학도 예술과 마찬가지로 어떤 지점에서는 구성적 차원이 불가피함을 간파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물리학자가 달성하려는 지고(至高)의 과업은 일련의 보편적 기본법칙에 도달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법칙으로부터 순수한 연역에 의하여 우주를 규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칙에 도달하는 논리적 경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경험의 공감적 이해에 기반을 둔 직관만이 그리로 인도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의 말은 과학이 본성상 예술과 상반되는 경향이 있지만 방법론상 예술과 공유하는 면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브로노프스키는 "예술과 마찬가지로 과학은 자연의 복제가 아니며 그것의 재창조다. 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징과 은유는 과학에 필수적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통찰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세계를 한낱 공식에 종속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과학의 공식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다. 예컨대 뉴턴의 만유인력법칙은 단 하나의 공식으로 우주의 물리적 구조 전체를 설명하고자 시도하며, 세계를 물리적 구조와 등가로 전제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현실이 공식으로 남김없이 설명가능하고 예측가능하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실의 빈곤화를 초래한다.

그러나 과학의 이런 인식은 예술이 세계에 접근하는 방식을 이해하면 하나의 착각임이 드러난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사물의 풍부함을 드러내는 예술 앞에서 과학의 추상성은 사물의 다양성을 외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태양은 날마다 새롭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은 과학자에게는 참이 아닐지 모르나 예술가에게는 옳은 말이다. 예술가는 사물을 관통하는 법칙을 찾는 자가 아니라 사물의 양상이 지닌 무진성(無盡性)을 밝혀 드러내는 자이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평범한 사물들 속의 진정한 형상을 보도록 해준다. 작고 하찮은 사물에서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예술이 가진 큰 특권의 하나이며 또한 가장 강한 매력이다.

6-1. 과학이 놓치지만 예술이 삶과 자연에서 포착하는 것 세 가지를 제시문에서 찾아내고, 이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예술가가 구사하는 '보기(seeing)'의 방법을 제시문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150자 이내) (12점)

6-2. 제시문은 과학과 예술이 세계에 접근하는 방법에서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공통되는 부분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50자 이내) (4점)